

□ 대학출판부 발전을 위한 제언

대학출판부는 학술활동의 거울



▲ 시내 대형서점의 대학출판물들. 하지만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출판부의 본래적

기능위해 재정

지원은 필수적

미국의 예일대학 출판부는

외형적으로 2백만 달러 이

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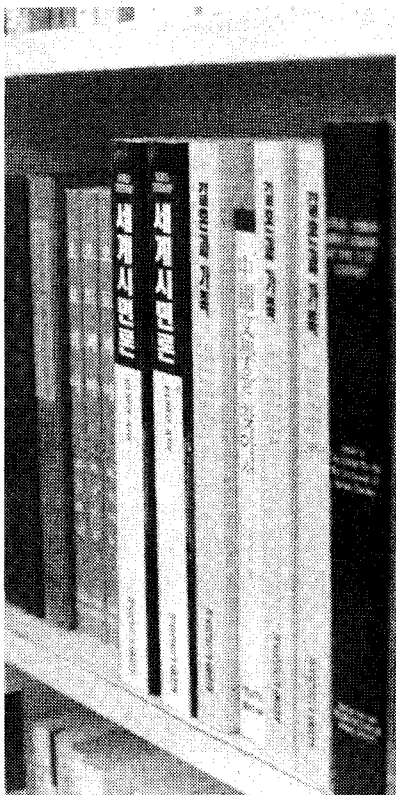
만 대학자체의 지원금은 매

년 15만 달러 가량 전달되

고 있다

김 중 현

(대학주보 편집간사)



▲종로서적 한 칸에 있는
경희대 출판물

출판업계 전체가 불황의 늪에 허덕이고 있는 판에 대학 출판부의 일약함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새삼스럽다. 그러나 최근의 상업적 출판 동향이 지나치게 실용서 위주로 흐르고 내용보다는 표지 디자인 등 외형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현실은 대학의 학술출판 노력을 더욱 절실하게 요청하게 된다.

대리자 역할에 만족

대학출판부가 존재이유를 지니는 것은 대학의 본래적인 기능에서 출발한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초대총장 Gilman은 지식의 유지와 전달, 발전, 그리고 발전된 지식을 일반에게 널리 보급하는 것으로 대학의 임무를 정리했다. 즉 대학의 기능은 연구자와 도서관이라는 두개의 축과 함께 연구활동의 결과를 대중화 할 수 있는 출판활동으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이다.

단순히 Gilman의 얘기속에서만 증명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의 출판기능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에서 본다면 대학의 출판부는 하나의 행정적 부속기관에 불과하다.

대학의 출판부가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데는 몇가지 원인이 있다.

먼저 대학내에 설립되어 있는 출판부 조직과 위상의 취약성이다. 2명 이하의

직원수를 지니고 있는 대학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출판활동이 기획에서 인쇄, 홍보, 영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문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임에 틀림없다.

경영형태의 비합리성과 독립성의 부재도 하나의 요인이다. 극소수의 독립법인체를 제외하고는 모대학이 처한 환경에 따라 이끌려지는 경향이 다분하므로 출판부 자체의 발전방향이나 결정권 행사가 극도로 제약받게 된다. 따라서 경영형태의 자율적인 발전이 없으므로 재정적인 어려움은 공통적인 현실일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출판부자체의 기획력 부족과 출판분야의 협소함이다. 이제까지 대학출판부는 대개가 학기중에 소요될 교재위주의 출판이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대학출판부 자체기획에 의한 다양한 서적출판보다는 위탁고가를 주를 이루고 있어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출판의 기능보다 대리자의 역할에 치우친다는 지적을 면하기 힘들었다.

전문인 양성 시급

대학출판부는 상업적 목적의 출판사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비영리기관이라는 명칭에서 보여주듯이 대학의 출판부는 이윤의 논리를 충실히 수행한다기보다 그 대학의 학문적 업적을 공표하고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당국의 지원과 협조가 절대적이다. 물론 대학출판부 자체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대학당국의 협조 정도는 출판부의 역할 수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먼저 대학내 출판부 조직의 독립성과 재정운영의 책임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경직된 대학의 행정조직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부여받으면서 활동의 폭을 넓혀나아가야 한다.

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다. 일례로 미국의 예일대학 출판부는 외형적으로 2백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지만 대학자체의 지원금이 매년 15만 달러 가량 전달되고 있다. 학술출판은 이미 손실을 예상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이는 대학이 사회적으로 지니고 있는 커다란 기능의 하나이기 때문에 재정지원은 단순히 손실로 처리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출판 전문인을 적극 양성해야 한다. 출판은 하나의 전문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출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인쇄에 대한 기술을 겸비한 사람의 적절한 배치는 대학출판부의 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대학출판부에서 나오는 서적들도 하나의 상품이라 한다면 홍보와 영업 등 여러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전문인의 양성은 주어진 숙제라 할 수 있다.

경희 유산 시리즈

② 경희의 평화운동

경희인들의 평화에 대한 연구는 평화 연구의 지렛대 역할을 해 오고 있으며 선구자적 위치에 있다. 교육과 사회봉사를 통해 평화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경희는 함께 노력을 경주해 왔다. 경희의 국제평화운동 중에서도 커다란 성과는 UN에서 '평화의 날', '평화의 해'를 제정(1982. 11. 30)한 것이다. 7백여명의 대학총장들이 모인 제 6차 IAU 총회에서 채택된 코스타리카 결의문을 바탕으로 평화의 해, 평화의 달, 평화의 날 제정을 UN에 건의하고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교류협력센터의 설립, 평화사상 확립을 위한 평화교육커리큘럼의 채택, 전쟁 중심이 아닌 평화중심의 세계사 개편, 세계시민강좌교재의 개발과 대학정규과목으로서의 채택등을 결의하였다. 1996년 IAU 창설 이래로 교육을 통한 세계평화의 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기본정신이 구체화된 것이다.

이에 경희는 세계평화의 날 제정을 기념하



▲광릉캠퍼스

여 1982년 이래 해마다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여 현대세계의 위기와 평화, 국제분쟁의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모색, 변화하는 국제환경과 1980년대의 한반도, 1990년대 동북아시아의 안전과 세계평화 등 세계평화를 위한 중요한 문제들을 심도있게 논의해 왔고 통일문제학술세미나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평화사전'은 20세기에 체결된 평화와 연관된 70여개에 달하는 중요한 국제 조약들과 1815년부터 현재까지의 평화운동에 관한 연도 및 노벨평화상 수상자들과 그들의 주요논문, 비문, 평화관련 제반문제를 연구하는 평화연구소와 조직체들의 목록도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평화의 날 제정은 동북아시아의 중심인 한반도의 평화는 곧 국동의 안전 및 세계 평화와 직결되며 세계 평화는 곧 한반도의 평화를 의미하므로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여 인류의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오일환 (중앙박물관 연구실)

캠퍼스 예술인

□ GLEE 총무 박주훈(경영학부 2)군

순수한 열정, 한마음으로 발산하는 사람들



노래가사를 흥얼거리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합창은 각자의 흥얼거림을 하나로 묶어내야 하기 쉽지만은 않다. 이 쉽지 않은 일을 한마음으로 추수한 합창 동아리 GLEE를 찾아가 보았다.

늦은 밤, 캠퍼스의 야경이 훤히 내다보이는 6층 한칸의 GLEE 방에서 피아노 앞에 앉은 GLEE단원 박주훈(경영학부 2)군.

노래가 좋아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좋아서 GLEE활동을 하게 되었다는 그는 GLEE의 가장 큰 자랑은 많은 단원들과의 깊은 인간애라고 말한다.

"합창은 듣는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위안을 전하지만, 부르는 우리에게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끼게 해준다"며 "함께 고생하면서도 서로 위로해주며 이끌어낸 우리의 노래를 선보일 때면 모두 하나가 됩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눈물이 날만큼 사랑하게 되죠"라고 말하는 박군.

79년 이래로 꾸준히 맥을 이어온 60명의 단원들은 일년에 두번 춘추계 연주회를 갖는다. 또한 졸업생의 소개로 KBS 빅쇼나 방송의 날 시상식 등에 출연해 코러스를 부르기도 한다.

연주회를 준비하면서 영어로 된 가사를 위우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며 수줍게 웃는 그의 모습에서 아마추어다운 순수함을 엿볼 수 있었다. 그 밖에 연습때 고생스러웠던 점은 연습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아쉬움을 털어 놓기도

했다.

'말은 일에 충실하자'라는 좌우명을 갖고 꾸준히 GLEE활동을 해 온 그는 개인적으로 얼마전 있었던 추계 연주회가 입대하기 전 마지막 무대였고 제대한 후에도 끝까지 GLEE에 남아 사람들과 함께 노래부르는 것이 작은 바람이라고 말했다.

"연주회가 끝나고 다들 얼싸안고 울었죠. 이번 연주회가 마지막 무대인 사람도 많았고 그동안 힘들게 연습했던 기억들도 복받쳐 오더라고요" 그들의 순수한 젊음의 발산구인 GLEE가 언제까지고 그치지 않는 화산이 되어 열기를 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

(정수윤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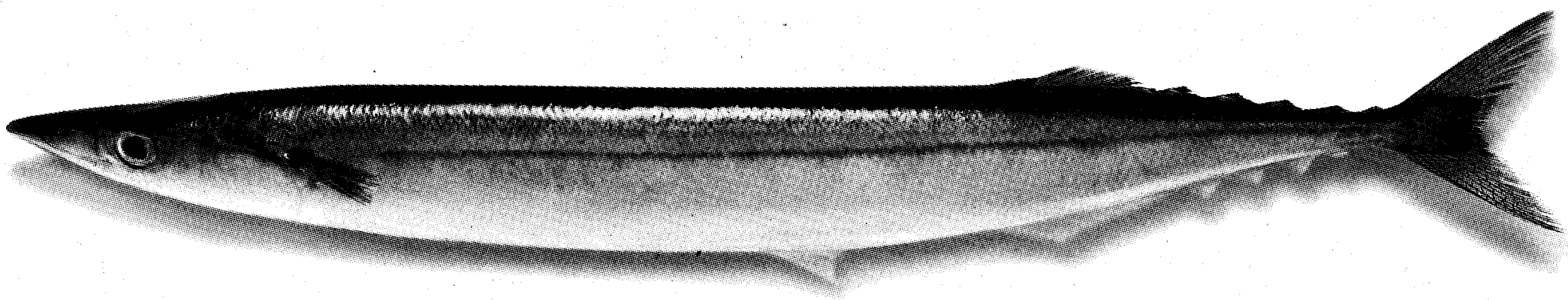
문화 단신

C.C.C 동계금식 수련회 한국대학선교회(C.C.C)는 오는 28일(오후 5시)부터 31일(오전 10시)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의 주제로 대학생 동계금식 수련회를 갖는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수동기도원에서 진행되며 문의는 학생회관 5층 C.C.C동아리 방이나 969-1185로 하면 된다.

뱃바람 정기연주회 서울캠퍼스 팬클럽 동아리 뱃바람은 내일 오후 7시 크라운관에서 제13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특히 이번 연주회 당일 모금액은 전액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쓰여진다.

일렉트로닉스 정기공연 서울캠퍼스 응원단 밴드 일렉트로닉스는 오는 5일 복지회관 공연장에서 제 15회 정기공연을 연다. 이날 공연에는 Theocan, Mr. Crowley의 18곡이 선보여진다. 공연 시작 시각은 오후 6시 30분이다.

'김씨 아줌마네' 거니까!



올해로 20년째, 김씨 아줌마는 요즘도 새벽3시면 수산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생선을 가져다 놓습니다. 그날 팔다 남은 생선은 다음날 팔지 않는다는 자신과의 약속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장모님은 이 동네에서 몇십년째 사십니다만 다른 생선가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김씨 아줌마네 생선은 신선하다는 믿음, 바로 그것이 20년 단골의 이유입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큰 믿음은 시작됩니다. 쌍용은 그동안 쌓아온 믿음을 소중히 가꿔 자신과의 약속, 고객과의 약속, 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믿음이 최고를 만듭니다

